



"말씀과 성찬의 식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연중 제6주일(세계 병자의 날)

2024년 2월 11일 / 제624호

성 당: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Office Hour: 화·목·금·주일 9AM - 1PM
E-mail: office@tvkcc.org / 홈페이지: www.tvkcc.org

사무실: St. Paul Chong Korean Catholic Community
c/o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TEL 925 - 871- 9746

미사	교중 미사	주일 오전 9시 30분
	English Mass	주일 오전 11시
	평일 미사	화·목·금요일 오전 9시 30분
고해성사	주일 / 평일미사 전 오전 9시 - 9시 25분	
유아세례	사무실로 문의	

주일학교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신심단체	레지오 마리아: 주일 / 평일미사 전후
	울드레야: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재속 프란치스코: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해설 손영채 제1독서 이준혁 제2독서 김하연 / 입당 18 봉헌 513, 216 성체 152, 185 파견 68
Narrator George Hegarty 1st Reader Jun Vicencio 2nd Reader Emiliana Lee

입당송 | 시편 31(30),3-4 참조

하느님,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체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체이시니, 당신 이름 위하여 저를 이끌어주소서.

제1독서 | 레위 13,1-2.44-46

화답송 | 시편 32(31),1-2.5.11(◎ 7 참조)

- ◎ 당신은 저의 피신처. 구원의 환호로 저를 감싸시나이다.
- 행복하여라,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씻은 이! 행복하여라, 주님이 허물을 헤아리지 않으시고, 그 영에 거짓이 없는 사람! ◎
- 제 잘못을 당신께 아뢰며, 제 허물을 감추지 않았나이다. "주님께 저의 죄를 고백하나이다." 당신은 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셨나이다. ◎

-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마음 바른 이들아, 모두 환호하여라. ◎

제2독서 | 1코린 10,31-11,1

복음환호송 | 루카 7,16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찾아오셨네. ◎

복음 | 마르 1,40-45

영성체송 | 시편 78(77),29-30 참조

그들은 실컷 먹고 배불렀네. 주님이 그들의 바람을 채워 주셨네. 그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으셨네.

[주일학교 및 영어미사 안내]

02월 11일	주일학교 YES	Fr. Theo
02월 18일	주일학교 NO	Fr. Jim
02월 25일	주일학교 YES	Fr. Gerald
03월 03일	주일학교 YES	



"기도 부탁드립니다."

Yong Ah Lee, 윤정의 알폰소,
박길순 수산나, 이순옥 테레사,
김난수 로사, 이형숙 한나,
주종남 바오로, 이경희 에우세비아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본당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마르 1,41)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제1독서에서 들은 레위기 말씀이 전하듯이, '부정한 사람'(또는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신체적 고통에 더해 공동체에서의 배제와 '부정한 사람'이라는 사회적 인식은 병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였을 것입니다. 심지어 스스로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기까지 해 이는 그들이 더욱 극심한 절망에 빠지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절망의 심연에 놓인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 살기 위해 찾아온 사람을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으로 보셨다고 복음은 전합니다.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이라 여기며 피하는 이를 예수님께서 가엾게 바라보십니다.

질병으로 일그러진 그의 몸골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그를 부정한 존재로 바라보게 하는 이유가 되지만, 예수님께는 그의 아픔과 갈망을 보는 계기가 되고 있음을 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의 일그러진 얼굴만 보며 피하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보시고 그에게 다가가서 손을 대시으로써 그를 낮게 하십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직접 병자에게 손을 '대셨다'고 전합니다. 손을 내밀어 환자에게 대는 행위는 상대의 신체적 고통과 절망을 함께 느끼고 위로하며 있는 그대로 사람을 받아들이는 공감능을 드러냅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죄인이자 공동체의 안녕을 위협하는 부정한 존재 취급을 받으며 소외와 차별을 겪어야 했던 사람, 그 아픔 때문에 스스로를 사랑하

지 못하는 불행에 놓인 사람을 향한 하느님의 특별한 자비와 위로를 보여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죄와 잘못으로 상처 입은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며, 위로하시고 용서하심으로써 낮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복음은 일깨웁니다. 그러한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희망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의지를 북돋아 줍니다. 이처럼 아픔과 고통 너머에 있는 갈망과 사람을 보고 자비의 손을 내미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도 있는 그대로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깨달음에서 비롯되는 자신에 대한 사랑은 더 나아가 이웃의 아픔과 고통 안에 자리하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며 그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밀도록 이끌어줍니다. 이러한 형제애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사회의 건강을 유지 시킨다는 것을 기억하며, 형제애로 가득차는 은총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봅니다.

박경근아우구스티노 신부 | 주교좌 기도 사제

사순시기 "신앙의 신비여!" 응답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p>김수정 REALTOR® Soo Jung (Julia) Kim KELLERWILLIAMS DRE 02049482 925.416.9249 kw julia.kim@kw.com</p>	<p>대 건 한 의 원 한의학 박사 이 준 침, 안약, 체중조절, 통증조절, 제질관별, 건강상담 6990 Village Pkwy #212 Dublin, CA 925-765-9755</p>	<p>STEVE G KIM DDS Family & Cosmetic Dentistry Dr. 김진만 치과병원 111 Deerwood Rd. Suite350 San Ramon, CA 94583 925-718-8970 / sgkdental@gmail.com www.sgkdental.com</p>	<p>Tri-Valley Orthodontics Jesse H. Ko DMD / Anne Yoon DDS 111 Deerwood Rd. Ste. 185 San Ramon, CA 94583 ph. 925-272-7868 www.tri-ortho.com</p>
<p>N² ART & DESIGN Private and Group Art Lesson 650-766-0972 n2artndesign.com n2artndesign@gmail.com</p>	<p>부동산 거래 필수 에이전트! 탐탁 부동산 TOM TAHK / 토마스 408-499-6543 / realtor.tahk@gmail.com *탐탁하다: [형용사] 모양이나 태도, 또는 어떤 일 따위가 마음에 들어 만족하다.</p>	<p>미술교실 전통민화 · 수채화 · 드로잉 · 아크릴화 초보자들도 쉽게 시작할수 있도록 기초부터 차근차근 지도해 드립니다 Cell (925)818-0770 fremontart@yahoo.com</p>	



살아있는 모든 것은 오늘을 살아갑니다. 무언가 오늘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이 살아 있음을 확인받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신앙인의 '오늘'도 단지 측정 가능한 시간적 의미의 하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인들의 살아있음은 항상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에 그들의 오늘은 언제나 하느님과 연관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모든 오늘은 늘 하느님께 자신을 일치시켜 나가는 과정이 됩니다.

이러한 오늘 하루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두 축이 있다면, 아침과 저녁입니다. 아침은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요한 1,9)이시고, "높은 곳에서"(루카 1,78) 솟아오르는 "의로움의 태양"(말라 3,20)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관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침은 주님의 부활을 경축하며 우리 자신을 그 신비에 내어 맡기는 모습을 지니게 됩니다. 모든 오늘의 시작을 부활의 신비 속에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은 하루가 끝나고 하느님께 자신이 받은 은총에 대해 감사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특별히 최후의 만찬과 주님 십자가의 신비를

기념하게 됩니다.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봉헌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며 그 사랑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면서 작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미래의 부활을 상징하는 새로운 아침을 기다립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바치는 기도는 그리스도 사랑의 신비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모습이 됩니다. 해돋이에서부터 해넘이까지 스며든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의 신비에 나의 오늘을 맞춰가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느님 뜻에 맞추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모든 '오늘' 안에서 바치는 기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의 시간이 성화됩니다. 우리의 유한한 오늘이 하느님의 영원한 오늘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오늘은 은혜로워지고, 거룩해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오늘'을 그리스도의 부활 신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갑니다.

<p>CPA 조미정 (카타리나) 조미정 공인회계사무소 6602 Owens Dr. #200 Pleasanton, CA 94588 Tel) 925-803-0200 jenny@jchocpa.com</p>	<p>새 차 13개 자동차 매장에서 도와드립니다 HANLEES AUTO GROUP 잭성 HILLTOP FREMONT FAIRFIELD NAPA DAVIS 직통: 510-283-6310 CELL: 510-776-5856 SUE CHO CELL: 530-220-2848</p>	<p>PARK CHIROPRACTIC Dr. Joon Park Office (925) 355-1450 Cell (925) 997-1257 7027 Dublin Blvd. Suite #101 Dublin, CA 94568 </p>
<p>HARMONY ACUPUNCTURE 석은경 아가다(Agatha Suk L.Ac) Tel 510-889-8062 917 C St. Hayward, CA 94541 www.harmony-acu.com harmonyacupuncture1@gmail.com</p>	<p> Dublin Pediatric Dentistry & Orthodontics 소아치과 교정 전문의 Elizabeth Jihyun Kim, DDS, MS 11920 Dublin Green Drive, Dublin, CA 94568 (925) 833-1900 smiles@dublinpdo.com www.dublinpdo.com</p>	<p>COMPASS REALTOR® 부동산 925.389.2463 Aiden.kim@compass.com DRE # 01983236 AIDEN KIM 에이튼 킴 (니콜라오) 부동산 TIM MCGUIRE TEAM</p>
<p>West Dublin PETSMART 한국어상담가능 수의사 임경택 6960 Amador Plaza Rd, Dublin 925-644-3114 DublinCA@petsmartvetservice.com</p>	<p>James Golf Class 어려운 골프 쉽게 쉽게! Instructor: 나정태(제임스) 925-434-2659 jrha.golf@gmail.com USGTF License #: 11512 </p>	<p>광고를 모집합니다. 서상일 시몬 hongbo@tvkcc.org 925-871-9746</p>



■ 사순시기 주요 전례 일정

- 2월 14일(수): 재의 수요일
(오전 9시 30분, 오후 7시 30분)
* 미사 중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 단식과 금육
- 2월 15일(목): 평일 미사 없음
- 십자가의 길: 2월16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영어), 오후 8시(한국어)
- 3월 2일(토): 사순 음악 피정(오후 7시 30분, 소성당)

■ 종신서원 25주년(은경축)을 축하드립니다.

- 권영랑 마리크리스티나 수녀님께서 종신서원 25주년을 맞으셨습니다. 은경축을 맞으신 수녀님의 영육 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사순시기 말씀살기

- 로마서·코린토서 묵상 / 하루 10분, 성경 읽기
- 안내 및 묵상 노트 다운로드: 본당 홈페이지 자료실
(www.tvkcc.org/lent2024)

■ 성지가지 수거 안내

- 재의 수요일(2월 14일)에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이 있습니다.
- 재 예식을 위해 지난해 가져가신 성지가지를 수거합니다.
- 기간 / 장소: 2월 11일(주일)까지 / 사무실

■ 사랑의 모후 꾸리아 2월 월례 모임

- 일정: 2월 11일(주일), 오전 10시 45분 - 오후 12시 15분
- 장소: Room A
- 대상: 각 브레시디움 간부들

■ 울뜨레야 신년 월례모임

- 일시: 2월 18일(주일), 오전 11 - 12시
- 장소: Room A
- 문의: 김현희 바드리시아(510-396-4740)

■ 성모회 공동구매 안내

- 공동체 발전 기금 마련을 위한 1분기 공동구매
- 품목: 참기름, 들기름, 미역, 곡물, 대추 등
- 주문: 2월 20일(화)까지
- 픽업: 2월 29일(목), 오전 미사 후 10시, 주차장
- 문의: 박경화 안젤라(408-318-7588)

■ 루르드·파티마 성지순례 신청 안내

- 일정: 11월 5일(화) - 11월 15일(금), 10박 11일
- 비용: \$2700(항공료 별도: \$1300 예상 추후 변경 가능)
- 신청: 3월 24일(주일)까지
- 신청 및 문의: 박경화 안젤라(408-318-7588)

■ 트라이밸리 그룹 성경 공부 모집

- 북가주 가톨릭 성서모임에서 3월부터 시작하는 그룹 성경 공부를 모집합니다.
- 한국어 그룹: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사도행전
- English Group: Genesis, Exodus, Mark, Acts, Isaiah
- 공부 요일 및 시작일: 그룹이 결성된 후 각 그룹끼리 결정
- 문의 및 신청: 임무영 알렉산드라(408-386-0656)
권 마리크리스티나 수녀님(714-900-0282)

■ 2023년 봉헌금 증명서 발급 안내

- Tax 보고용 봉헌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사무 데스크(로비)에서 신청서 작성 또는 이메일 (office@tvkcc.org) 등록번호, 증명서 발급 영문이름, 전년도 주일헌금 (본인이 계산/추정하는 금액) 기재

■ 2월 반모임 일정(www.tvkcc.org/2024febcellmeeting)

루카 2	2/11(일)12:15PM	Room A	925 997 3127
루카 3	2/18(일) 1PM	플레즌튼 파리바게트	619 889 7835
마태 5	2/24(토) 8PM	Room A	510 468 8371

■ 지난주 우리의 정성 Offertor and Donations

(수표 작성 시 Payable to Tri-Valley Korean Catholic Church)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English Mass				
\$2176	-	\$3190	\$160	\$190	\$5716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기원태(10-12/23), 김지용(1), 김홍락(2), 박일신(1-3), 배성준(2), 안영애(1,2), 이줄리아(4), 이희열(2,3), 정종락(2), 조현태(2), 함종식(2), 황희숙(2)

-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김홍락(2), 박일신(1-3), 안영애(1,2), 이희열(2,3), 정종락(2), 조현태(2), 함종식(2)

- Bishop's Appeal

김홍락(2), 박일신(1-3), 안영애(1,2), 이희열(2,3), 정종락(2), 조현태(2), 함종식(2)

- 성전봉헌금 기원태, 김현국신부님, 두신, 주영근

- 꽃봉헌 이원숙

- 초봉헌 함종식

- 지난주 간식봉헌 장진환 라파엘·박경화 안젤라 / 박종태 이나시오·권현정 안젤라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신재영 프란치스코 가정(루카 7)
심세웅 요셉 가정(루카 8)



고해성사 후 나오실 때
고해소 문을 살짝 열어
두시기 바랍니다.